

#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인권실태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의국인관광사 설립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홍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 등 인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인성화 시선요구만 갖추면 쉽게 근로지파(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그내에서 인하는 외국인 연예인우 국내공연 기회시에 고용된 근로지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지리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시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받으며 인권의 시가지대에 놓여 있다.

글 | 김 동 심 · 주례방 성남신상

**1996년부터** 기지촌의 성산업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여성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는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의 80~8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1999년까지는 필리핀 여성들의 수가 제일 많았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구 소련계 여성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실태 보도로 인해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한국정부는 200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 부회에 대한 예술홍행사증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여성들은 줄고 필리핀 여성들이 늘었다가 2004년부터 다시 러시아 여성들이 가수 자격으로 예술홍행사증을 발급 받기 시작하여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났다. 현재 기지촌 외국인 클럽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필리핀 여성들이고 나머지 15% 정도가 한국여성들과 소수의 러시아 여성들이다.

##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이들은 입국 시 에이즈를 비롯해 건강검진을 받고 입국 후 클럽에서 일 하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당 보건소에 가서 성병검진을 받는다. 최근에는 미군들의 반인신매매에 대한 정책마련과 더불어 미군들의 반인신매매 교육, 외국인 전용클럽의 인신매매 연루 여부 단속과 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이주여성들의 성매매 피해사태가 많이 줄었으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성병이나 에이즈 등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약 여성들이 입국 후 클럽에서 일하



▲ 공청회



▲ 농무촌 생안농 부토진로



▲ 아이 프로그램 중

면서 질병을 앓게 되면 계약서상 그 비용은 기획사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원금에서 제한다. 이주 여성들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내야하고 언어나 정보 등의 문제로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한 의료혜택은 업소의 마마생(중간관리자)을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신체적·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심지어 원금을 1~2년 동안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속 기획사 매니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업주로부터 유혹받거나 강요당한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 남성들이 내는 돈은 지역과 클럽별로 다르나 보통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낸다. 여성들은 그 중 10~50%의 커미션을 받아 보통 4~5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한다.

클럽을 탈출한 후에도 동거나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는 이주 여성들도 많으며 양육비를 비롯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성들도 많다.

####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불안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부당한 인권착취와 성매매 강요 등을 참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경우 여성들은 '사업장 무단이탈'로 인해 체류자격을 잃고 비등록자(불법체류자)가 되어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대부분 여성단체나 남자친구 등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경우 탈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인과 결혼하게 되면 미등록 기간(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벌금을 내고 체류자격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되지만, 안되는 경우 비등록상태로 숨어살아야 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단속될 경우는 본국으로 강제출국된다.

성매매 강요 등 부당한 인권착취를 당한 경우 국내여성과 마찬가지로 쉼터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빈곤의 문제로 돈을 벌러

와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가족들의 생계문제로 관련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본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부치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숨어살며 돈을 버는 길을 택한다.

클럽을 탈출한 후에도 동거나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는 경우도 많으며 양육비를 비롯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성들도 많다. 아이의 아버지인 미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양육비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지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서

울 부산 등 대도시의 유흥업소나 관광클럽 등에 많이 유입되어 있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여성들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임신매매자들에게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하며 성매매를 비롯한 여성폭력의 근절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홍보 사업들이 필요하다.